

공경받고 싶은가? 먼저 남을 공경하라

파계사로 가는 길은 가팔랐다. 가파른 길입수목 숲을 오르면서 느린 걸음으로 가야 하는 법. 느리게 걷다 보니 아카시아 나무며 이끼 낀 참나무가 눈에 들어온다. 좀 더 걸음을 늦추니 낮게 엮인 보랏빛 달개비 꽃이며 주홍빛 나리꽃이 보인다. 좀 더 귀를 기울여 보면 나무들의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꽃잎들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계절마다 들려주는 산의 울림은 다르다. 철쭉의 산이 들려주는 소리엔 생명력이 가득하다.

동화사의 말사인 파계사(把溪寺)의 신라 애장왕 때 심지왕사가 창건했다. 파계사 인근에 아홉 갈래나 되는 물이 흘러내려가 땅의 지기(地氣)가 흠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절 아래 연못을 파고 물줄기를 모았다는 데서 지어진 이름이다. 계곡을 잡는다는 뜻이 담겨있건만 어떤 이는 계(戒)를 파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어 사명(寺名)이 참으로 파격적이라 한다. 하지만 파계사는 영산율원을 두고 있어 '계율도량'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영산율원은 총림이 아닌 단위사찰로서는 조계종 최초의 율원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

율사인 철우 스님과 마주 하니 무엇부터 여쭙어야 할지 갑자기 말이 막히는 느낌이다. 먼저 계율의 의미부터 여쭙었다.

"계율이란 행위, 습관, 도덕, 행동과 언어에 악을 짓지 않고 방지하는 계(戒)와 부처님들의 제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과 여러 가지 잘못과 악을 억제하는 율(律)을 합한 말입니다. 부처님은 '살생하지 않아 자비심을 길러야 하고, 훔치지 않아 배움을 배워야 하고, 사음을 하지 않아 정결을 지킬 줄 알아야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 진실해야 하고, 술을 마시지 않아 맑은 정신으로 깨끗한 행으로 살아야 깨달음을 얻는다' 라고 말씀했어. 그리고 계율은 대중을 화합시키므로 꼭 지켜야 함을 강조하셨습다."

철우 스님은 '계율을 지니면 성품이 강직해져서 율화가 되지 않고 편벽된 사람이 된다'는 시각이 없지 않아 있다면서 그 점이 안타깝다고 했다.

"계를 가지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뉘우치는 잘못이 없게 하는데 뜻이 있고, 뉘우치는 잘못이 없게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지혜는 계에 의해 청정해지고 계는 지혜에 의해 청정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철우 스님의 거처는 한글대장경을 비롯해 온통 책으로 둘러싸여 있다. 다른 책에 비해 두 배 정도 큰 책이 있기에 궁금해 여쭙었더니, <사분율장>이라 했다. <사분율장>은 계를 받은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책으로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금서(禁書)라고 했다. 스님께서 몇 년에 걸쳐 <사분율장> 한글 현토번역본을 완역했는데, 이것은 전국의 율원에서 교재로 쓰이고 있다고 했다. <사분율장>을 번역한 것은 철우 스님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 했다. 율원에서는 새벽 예불을 마치고 학인들과 함께 <사분율장>을 간경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쿠시나카라의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을 앞두고 아난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며 남에게 의지하지 말



파계사 영산율원 율주 철우 스님

철우 스님은 ...

1959년 경북 청도 적천사에서 향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 의정부 망월사에서 향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수지. 합천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부산 범어사승가대학(2회) 졸업. 해인총림 율원 졸업. 호경 강백으로부터 전강, 자운 율사로부터 전계, 조계종 행자교육원

습의도감, 계단위원회 위원, 단일계단 구축계 존중이사리, 법계위원회 시행위원, 파계사 영산 율원 율주 등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천천히 가는 것을 겁내지 마라> <육심을 버리는 방법> 등이 있다.



라.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 남을 등불로 삼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 철우 스님은 이렇게 해석했다.

"유언은 자기 자신의 의지에 대한 진리에만 따르는 마지막 계명이라 할 수 있어요. 계율의 폭은 넓어서 성품까지도 조복할 것을 요구하며 몸과 입과 뜻의 삼업(三業)을 금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위가 일어날 때마다 부처님과 장로들이 그러한 것을 금지시키는 규정을 만들었으며, 이것이 발전해 대단위 계율이 된 것이라 한다. 철우 스님은 '모든 계법 가운데 5계가 가장 기본이며 그 가운데서도 불살생을 계의 근본으로 삼는다'고 했다.

동진 출가한 동기를 여쭙었더니 "그 시절엔 내 뜻이 따로 없어요. 어른들의 처분에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라고 답한다. 향봉 스님을 은사로 동진 출가해

씩을 선물했는데, 연필에 '정신 차려, 벽안'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무섭기만 했던 분이었는데, 자상한 배려에 한편은 놀라고 한편은 가슴 뭉클했던 기억입니다. 스님은 사랑받고 공경받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먼저 사랑하고 공경하라는 의미의 가르침을 연필에 새겨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공경하지 아니하면 박복해지고 공경 받지 못하면 마음에 그늘만 드리울 뿐이라고 말미에 덧붙였다.

성우 스님과 철우 스님은 제방선원에서 평생 동안 참선 수행하는 수좌들처럼 평생 동안 계율을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율원을 만들자는데 뜻을 모았다. 그렇게 해서 파계사에 영산율원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계율공부를 위해서는 율원을 강원처럼 4년 과정으로 늘여야 한다는 소신을 갖

직접 완역한 '사분율'로 새벽 예불 후 학인들과 간경

"불살생이 계의 근본이자 큰 생명으로 가는 첫걸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행자생활을 했다'면서 율사의 길로 들어선 것은 순전히 강원도반인 성우 스님 덕분이라 했다.

"강원을 마치고 성우 스님이 해인율원으로 간다고 에 나도 율원으로 간 것이지, 큰 뜻이 있어 간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철우 스님은 자신을 전혀 내세우지도 꾸미지도 않는다. 계율의 폭은 넓어서 성품까지도 조복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또 비구는 신구의(身口意) 삼업이 청정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철우 스님은 통도사 강원에서 공부할 때 산중의 어른이신 벽안 스님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있다고 했다.

"벽안 스님은 학인들이 무서워하리만큼 엄격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스님은 먼 길을 다녀오시면 빈손으로 그냥 넘기지 않는 '어른 사람'을 보여주시곤 했어요. 한 번은 스님께서 학인들에게 연필 한 자루

고 있었던 철우 스님은 2005년 대학원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계율연구원 '비니원'을 개원했다. '비니원(毘尼院)이란 율원이라는 뜻인데, 뜬금없이 영산율원에 비구니율원이 생겼다고 한때 소문이 돌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만큼 계율에는 등한시함을 방증하는 것이라 했다. 스님은 또 계율에 관한 장서를 모아놓은 도서관 '비니장'을 만들어서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했다. 영산율원을 통해 해인사 앞 율원장 혜능 스님, 통도사 율원장 덕문 스님, 송광사 도일 스님 등 1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스님은 5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면 "불살생을 지킴으로써 생명의 존엄성을 스스로 깨닫는 것은 우리가 보다 큰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 했다. 부처님은 살생은 '자비의 종자를 끊는다'고 하셨다. 한 생명이 상하는 것은 바로 나의 생명이 상하는 것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할 터이다. 재가불자들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는 계율은 가장 기본적으로 받는 계율이면서 이것처럼 지켜지

유기농 보이차 (ORGANIC PUER TEA)
유기농 보이차의 보급화 선언!
 현불샵(hyunbulshop.com) 입점 기념 15%할인 판매
 250,000원 ⇨ 15% DC 특별 할인가 212,500원

이주 특별한선물 유기농 보이차선물세트 (유기농보이차 속차 357g + 대나무보관통 + 보이차다기세트 7종)

1등급 100% 유기농 보이차만을 엄선하여 준비했으며 보이차 전문 다기세트는 드리는 분의 정성과 선물의 격을 한층 더 높여 드립니다.

- 제 6기 중국보이차 "보이차왕" 수여
- 미국 FDA, 유기농인증 획득한 USDA
- 일본 유기농인증기관인 JAS

중국 보이차 기업 중 최대규모인 670만평 이상의 보이차 생산단지과 100%유기농법으로 생산하여 그 품질과 맛이 가장 뛰어난 (주)고진 유기농 보이차! 후 발효차인 보이차의 깊은 맛과 오묘한 향의 끝맛을 그대로 발효시켜 황제의 기운을 느끼게 하는 특별한 유기농 보이차입니다.

중국에서도 유기농화시대로 처음으로 생산 공정과 가공공정 발효공정에 특허를 받아 율생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깨끗하게 발효시켜서 만든 유기농보이차입니다. 중국황제가 마시던 보이차는 오래 묵을수록 귀한 고가의 차며, 미생물에 의한 발효를 거치는 후 발효 차이며 오래 묵히면 묵할수록 고가의 차가 됩니다. 방습통풍이 잘되는 적절한 온도하에서 보이차는 독특한 맛과 향, 약효를 가지게 됩니다.

유기농 보이차는 상류층이 주로 애용하는 고가의 차이며 국가주식 후진타오도 보이차를 즐겨 마시는 보이차 애호가입니다.

중국의 주석 후진타오가 용생유기농 보이차를 접하고 나서 유난히 맛과 품질이 뛰어난다는 점을 알게 된 후, 현재 후진타오 국가주식이 용생 보이차만을 애용하고 있고 최고의 품질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국제적으로 홍보를 대신해 주고 있으며 유명인사 방문 시 용생의 보이차를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 유기농 보이차 속차

- 제 품 명 : 유기농보이차 속차 · 식품유형 : 침출차 · 내용량 : 357g
- 제조회사 : Yunnan Longsheng Green Industries (group) LTD
- 원재료명 : 보이차 100% · 원산지 : 중국 운남성 · 수입판매 : (주)고진 · 포장재질 : 종이재
- 제조일자 : 2007년 03월 01일 (제조일자는 2007년이지만 2006년에 수확한 차잎을 사용해서 제조하였습니다)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0년 (보이차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치가 높아지기때문에 적당한 장소에서 보관만 잘 하면 율생유기농 보이차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 불교온라인쇼핑몰 현불샵(www.hyunbulshop.com)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불교 최고의 신문!

현대불교신문사 총청지사는
최고를 지향합니다

불교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보도하는 현대불교신문은

연합뉴스, 뉴시스, 충청뉴스, 한국불교신문, BBS 청주불교방송, HCN 충북방송, 충청권 일간신문(충북일보, 충청매일, 충청타임즈, 중앙일보, 중부매일, 충청타임즈, 대전일보)에 실시간으로 기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총청지사
 대전, 충남, 충북

- + 사찰의 법회, 행사 취재 보도
- + 사찰의 홍보 및 광고
- + 신문사(통신사)에 기사작성 제공 (연합뉴스, 뉴시스, 충청뉴스)

제보, 구독, 광고문의

- 충북지사 : 043-732-5560
- 대전지사 : 042-223-8214
- 지사장 : 010-9522-8453 (혜철스님)
- 기자 : 010-5078-9748 (이한배 기자)

현대불교신문 1인 1부 구독하기 운동에 동참합니다.
 최고를 지향하는 총청지사가 되도록 저희 임직원 일동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지동이체를 신청 하시면 편리합니다. (통장번호 / 주민번호 / 주소 / 연락처)

현대불교신문 총청지사